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상상력

도시와 인간



박기현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광주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2004년 10월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 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는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잠재력을 문화, 공예 및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미식, 영화 등 7개 분야 가운데 한 가지 분야로 특화해 관련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물론 해당 도시의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는 17개국 25개 도시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엔 서울시(디자인)와 경계 이천시(공예 및 민속예술)가 가입하였다.

그런데 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려고 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유네스코에 가입하게 되면 지속적인 전문가의 기술 자문, 사업 기술 훈련 및 문화산업 간의 보다 나은 국제 협력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가입 도시들 간의 노하우·지식·경험·우수사례 및 발전경험공유를 확대할 수 있으며 도시의 문화적, 창의적 자산 등 문화적 역량에 대한 국제적 홍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창의 산업 육성 및 관광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신청 과정에서 지역민의 지역 내 창의적 문화자산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및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광주 외에도 부산, 대구, 전주, 제주 등 국내 여러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광주시의 입장에서 네트워크 가입에 앞서서 필수적인 검토 사항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명도시와 창의도시에 가입된 도시들의 현황과 특징, 전략 및 활동내용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속도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요소 어떤 것인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방향 및 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이자 미디어아트 분야

의 유일한 창의도시인 리옹은 현재 전 세계 미디어아트의 중심지로서 타 미디어아트 도시들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리옹은 특히 디지털 게임 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매우 활발하며, 공공부문 예산 20%를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문화 분야에 할당하고 있는 등 미디어아트를 리옹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비교하여 광주 역시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광주의 전략산업인 관광산업, 그리고 문화중심도시 사업 중 게임·첨단 영상산업, CGI 산업 등과 맞닿아 있는 기반 조건뿐만 아니라, 디자인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문화정책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결코 경쟁력에 있어서 뒤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주에는 국내의 다른 도시에서 찾기 힘든 미디어아트 그룹 'Solar Eclipse(일식)'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분야의 문화전문 인력 양성제도가 있다는 것이 광주의 큰 강점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나 기획자들은 광주 또는 수도권외의 미술대학에서 공부한 국과와 유과와 작가들이며, 광주 현대미술의 낙후성을 절감하면서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전위적인 실험

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룹이다.

광주가 미디어 아트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방법론을 실험하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젊은 문화전문인력 그룹을 양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새로운 영역을 광주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향유하려면 미디어 아트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소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작가의 영역이 아니라 광주 문화재단이나 지역 거점 대학교, 그리고 광주시가 나서서 작가들의 작품들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어둠속에서 더욱 강렬한 빛을 던지는 '일식'처럼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 광주가 진정한 미디어 아트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실험적 성격,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과 그에 대한 비평적 담론, 그리고 광주시 전체가 합심하여 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서달원

내 발밑에는, 내 가슴 속에는 어떤 보물이?

날마다 자기 집 앞 흠들의자에 앉아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않겠다고 결심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꼬마가 굴러가는 공을 잡으러 왔다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하세요?" "꼬마야,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단다."

꼬마가 잠깐 놀라며 말했습니다. "매일 흠들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렇단다. 죽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싶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

"증거라고요? 할아버지, 하나님은요. 할아버지가 숨 쉴 때마다, 꽃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증거를 주고 계세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실 때도, 아기들이 태어날 때도,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가슴에 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할아버지 마음 안에 계시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만일 어떤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왜냐하면, 가장 단순한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생명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요."

잠시 뒤 꼬마는 길을 건너가더니 길가에

핀 꽃향기를 맡고는 노인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하느님'을 '내가 가장 바라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틀만큼이나 5월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루하루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는 예쁜 꽃들뿐만 아니라, 집 앞 뒷밭에 심어놓은 상추며 고추, 치커리, 감자와 구구마가 싹을 틔웁니다. 다 자라면 바늘만큼이나 가까운 침입수의 잎사귀들도 언뜻빛 어린 새싹은 부드럽기만 합니다. 이 언뜻빛이 이제 조금 더 으르면 녹음으로 짙어지겠지요. 일정에 바쁜 시간을 보낼 때는 스쳐 지나가지만, 조금의 여유가 생길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작은 꽃꽃 하나까지도, 생명은 어쩌면 이렇게 신비로운지 모를

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을 키워내는 땅은, 흠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니 5월은 계절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물론 사는 형편에 따라서 같이 그리고 따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면서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겨 서로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 쉬운 내 가족, 내 뿌리,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장 좋은 계절에 두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생명을 싹 틔우고 살아가게 하는 흠(대지)과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서, 놓이 쉬운 것들에만 마음을 두다가 발밑을, 가까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에도 마음 들여유만 있다면...

(천주교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기고



기광연

내일 '부부의 날'에 장미꽃 한 송이를!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지난 1995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부부는 송고한 사랑으로 맺어진 희생적인 관계이며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이며 친구이자 애인이다. '부부의 날'을 맞아 서로의 마음을 장미꽃 한 송이 또는 한 다발에 담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단.

장미는 꽃 중의 왕이며 세계 3대 화종의

하나로 광주, 전남 100여 농가에서 국내 재배면적(518ha)의 10%를 재배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150여 종의 다양한 꽃색의 국산 품종이 육성돼 전체 시장의 15% 정도를 차지, 연간 40억~50억원의 로열티를 절감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해 한마음, 하트원, 이노센스 등 15종의 다양한 화색의 다수성 장미를 개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가에 2ha를 보급했다. 현재도 시장성 있는 품종개발과 육성된 품종의 품질과 수량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미는 '사랑', '질투'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 꽃 색깔별로도 다양한 뜻을 담고 있어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최적이다. 빨간 장미는 '열정', '기쁨', 하얀 장미는 '순결',

'존경', 핑크장미는 '행복한 사랑', 노란 장미는 '질투'를 뜻한다. 또 빨간 장미 20송이는 '열렬한 사랑', 빨간 장미 44송이는 '죽도록 사랑'을, 101송이는 '프러포즈' 등 장미 송이 수에 따라 뜻이 다르다.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대일(對日) 꽃 수출길이 막히고, 인건비·재료비와 유통비 상승으로 인해 장미 재배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꽃 소비형태는 2월 졸업시즌과 행사 기간이 많은 5월과 봄, 가을에 유독 집중돼 있어 유럽의 연중 소비형태와는 다르며 경조사용으로 대부분 소비되고 있다.

소비 시기별로도 가격 진폭이 매우 커 5월 이후에는 소비가 감소하고 절화(折花)가격이 낮은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꽃 소비액은 1만8000원으로 우리보다 경

제 규모가 큰 네덜란드와는 6배, 소득수준이 비슷한 슬로베니아는 3배 차이로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꽃을 사치품으로 인식하고 상대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을 속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 사치스럽고 비싸다는 인식에서 일반 소비계의 하나로 인식하고 특별한 날이 아닌 평소에도 꽃을 선물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모토로 장미꽃을 자연스럽게 선물했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장미 생산자들도 보다 품질이 우수한 좋은 꽃을 생산하고 수출국의 다변화 노력과 다양한 꽃 제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들의 장미꽃 한 송이가 우리나라 미래의 꽃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 장미 생산액이 2000억원대 시장으로 확대돼 웃음 가득한 재배농가의 희망찬 미래를 떠올려본다.

(전남대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연구사)

엔딩크레디트마저 줄이려는 극장들의 상술 불패

영화를 좋아해서 극장에 자주 간다. 영화는 다른 장르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딩크레디트이다. 영화가 끝난 후 영화의 내용을 음미하라는 뜻에서 음악이 흐르고, 대개 화면에 제작과 관련된 많은 스태프진들의 이름과 역할이 올라간다.

관객들은 영화의 감동을 그 엔딩크레디트와 함께 진정으로 느끼며 마지막 여운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이 영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나 엉덩이를 털며 나간

다. 이 때문에 뒤에 앉은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소름까지 생기게 해서 관객들을 불편하게 함은 물론 영화의 맛을 떨어뜨린다.

두 번째는 상영관속 태도다. 빨리 끝내고 다른 엔딩크레디트 보려는 욕심에서이기도 하지만 엔딩크레디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영관에 불을 켜고 안내 직원은 스크린 쪽에 서서 "퇴장은 이쪽으로 하세요." 라던가 "음료수와 쓰레기는 저쪽에 버려주세요."라며 친절하게 안내한다.

그 뒤를 이어 극장 안에 청소하시는 분들

이들이닥쳐 빗질을 시작하면 엔딩크레디트를 감상하려고 앉아있던 내가 바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를 좋게 감상한 영화의 마지막 여운을 즐기려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하고 엔딩크레디트 시간을 단축하여 한 회라도 더 상영해서 잊속을 쫓기는 극장의 황포!

물론 그런 극장의 황포에 호응하여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가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일부 관객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그런 걸 조장하는 극장이 좀 양심껏 매너 있게 영업해주기 바란다.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울목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광주·목포시 의원 해외연수 적절치 않다

광주시의회와 목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논란이다. 각각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을 했던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이를 만에 단식을 풀고 외유에 나선다고 한다. 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 9명과 공무원 2명 등 11명은 20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스위스, 독일 등을 방문한다.

하지만, 이번 연수는 과학벨트 유치에 실패한 뒤 시작한 단식농성을 불과 이틀 만에 걸어치우고 서둘러 해외로 나가는 것이어서 누가 봐도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 관련행사가 열리고 있는 추모기간에 해외 연수를 가는 것도 문제다.

목포시의회는 의원 해외연수를 그룹별로 일정 맞춰 1년 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당

별로 또는 뜻이 맞는 의원끼리 그룹을 정해 연중 아무 때나 연수를 간다는 것이다. 목포시의원들은 해외연수를 개인 여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캐리캐리, 그것도 맘대로 가고 싶을 때 연수를 갈 수 있겠는가. 국민이 낸 혈세를 호수머니 돈쯤으로 여기는 행위가 다름없다.

급변하는 세상에 지방의원들이 우리보다 나은 나라들의 각 고장과 도시를 어떻게 꾸려가는지 살펴보고, 책임자와 만나 교류 방안을 협의하는 일은 마땅히 필요하다. 물론 외유성 해외연수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목적이라면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한다.

그렇다 해도 해외연수는 형세로 이뤄지는 만큼 목적 못지않게 시기·방법도 주민들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책임있게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풍토를 스스로 조성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해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날 것이다.

5·18 민주화 성지에 편의시설 없다니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의 명소로 자리잡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 마땅한 편의시설이 없어 참배객들의 불편이 크다고 한다. 묘역에는 묘지와 민주광장, 역사 및 전시공간 등이 조성돼 있지만 순례나 참배 후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공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민주묘지는 해마다 기념식 개최는 물론 전국 각급학교의 수학여행과 기업·단체 등의 역사체험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묘역을 찾는 방문객 수는 지난해 69만5900명, 올해 현재까지 42만여 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 쉽터라고 해야 어린이 체험학습관 입구와 매점 열, 주차장 인근에 마련된 파고라 11곳을 포함한 등반이벤트 130개가 전부다.

따라서 수학여행 등을 온 단체 참배객들이나 체험학습을 위해 찾은 많은 어린이들이 묘지를 둘러보는 동안 무더위에 시달리고, 마땅한 편의공간이 없어 땀 바다에서 식사를 하는 게 일상사

라고 한다. 참배객과 학생들이 힘들고 불편을 겪는다면 민주묘지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떻게 비춰질지, 5·18의 숭고한 정신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사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 현충원 등과 다른 여러가지 면에서 성격이 다르다. 민주묘지는 참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순례와 체험, 학습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개방과 포용의 의미를 지닌다. 그 많은 참배객과 단체 수학여행 및 어린이 체험학습 행렬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민주묘지에 그 위상과 성격에 걸맞은 편의시설 및 공간 등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편의시설을 만들어 기념식 때는 식당이나 행사공간으로 이용하고 평상시엔 학습을 위한 강당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 5·18 유가족들이 매년 기념식 때마다 땀 바다에서 식사를 한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無等鼓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민중가요를 넘어 대중가요가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탄생한 것은 1980년 12월이다. 민중운동가이자 작가인 백기완의 '햇빛나리'에 실린 '젊은 남녘의 출근에게 띄우는'시를 시인 황석영씨가 개사하고 김중룡이 곡을 붙였다. 햇빛나리는 백씨가 보안사에 끌려가고

이후에는 각종 진보단체의 집회 때 '민중의 레'의 일부로 사용될 정도로 애용되고 있고 외국어로 번안돼 한국을 대표하는 대중가요로 대접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푸대접을 받아 온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올해 5·18 기념식장에서 합창했다. 3년만의 일이다. 프랑스 국가인 '라마르세예즈'는 프랑스혁명 직후 시민군들이 마르세유에서 파리까지 900km를 행진하면서 부른 곡이다. 어찌보면 폭도들이 부른 곡이 애국가가 된 것이다. 라마르세예즈를 보면서 다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

/장필수 시화부 차장 bungy@

문을 받고 나온후 지은 시집으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고통받은 민중의 아픔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김중룡은 전남대를 다녔던 1979년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영랑과 강진'이란 곡으로 은상을 수상했고 메이저 음반 제작사인 소니뮤직의 전신인 소니BMG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2년 2월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서 열린 유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서 추모곡으로 불리면서 부터다. 지인들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유상원과 윤씨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이사 申港樂		편집국장 李秉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촌매주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